

KIA 마운드, 급할수록 돌아가라



임경영



홍건희



박정수



허준영



김기훈



투수진, 스프링캠프부터 부상과의 싸움
투타 잇박자 속 마운드 붕괴...꼴찌 추락
젊은 투수들 자신감 찾고 기회 부여 중요
적절한 위치에 선수 투입 '운영의 묘' 절실

'위기의 마운드'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KIA 타이거즈는 엇갈리는 투-타에 처음 10위까지 추락했다.
주축 타자들의 동반 부진으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던 초반에는 '젊은 마운드'가 패기로 팀을 지켰다. 하지만 타선의 반전 조짐이 보이지 마운드가 무너졌다.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험 부족의 젊은 투수들이 어려운 경기들을 풀어오느라 힘이 많이 떨어졌다. 여기에 투수진의 끊이지 않는 부상이 마운드 붕괴의 결정타가 됐다.

시작부터 부상이 KIA를 따라다녔다.
'전전후 투수'로 기대를 했던 박준표가 위 용종 제거 수술로 캠프를 건너뛰었고, 지난해 필승조로 활약했던 임기준도 어깨 부상으로 뒤늦게 대만 캠프에서 시즌 준비에 나섰다.
김세현은 몸 상태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캠프 시작과 함께 중도 귀국 했다. 조기 캠프에 나섰던 윤석민도 어깨 통증 재발로 일찍 짐을 쌌다. '선발 후보'였던 한승혁 역시 오른쪽 내전근 부상으로 캠프 완주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줄부상 속 선발로 시즌을 시작한 임기영

은 옆구리 부상으로 가장 먼저 투수조에서 이탈했다.
약몽 같았던 지난 사직 원정길에서는 양현종이 타구에 왼쪽 팔을 맞았고, '마무리' 김윤동은 대흉근 부상으로 쓰러졌다.
황인준도 재등투와 함께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결국 홍건희에 이어 대체 신인 양승철이 대체 선발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마운드 관리 실패 속 당장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가 없다는 점이 고민을 더 한다.
양현종은 올 시즌에도 이닝에 욕심을 내고 있지만 시즌 준비 속도가 더뎠고 타박상도 입었다. 부상은 없지만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의 초반 성적도 압도적이지 못했다.
김기훈은 예측불허의 제구가 고민이다. 홍건희는 아직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
마운드의 큰 틀을 잡아줘야 할 선발부터 계산이 서지 않는 가운데 힘을 더해줄 지원군도 부족하다.

지난 16일 퓨처스리그에서 첫 실전에서 나섰던 박준표의 곁눈이 다시 멈췄다. 박준표는 이날 경기 도중 공에 맞은 다리 부위 상태가 좋지 않아 재활을 하고 있다.
한승혁은 부상이 재발하면서 복귀 준비 과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시즌 필승조 역할을 해줬던 유승철은 밸런스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퓨처스 리그 2관왕 전상현이 꾸준히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박정수는 한 차례 1군 등판을 치른 뒤 재등투를 하면서 꼴을 기다리고 있다.
박홍식 퓨처스 감독이 '완벽한 재활'을 목표로 차분하게 지켜보던 윤석민과 임기영은 실전 준비를 앞두고 있다.
윤석민이 등판 준비를 끝내면서 23일 퓨처스리그 엔트리에 마침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함평 첼리저스필드에서 예정됐던 고양 히어로즈와의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윤석민은 24일 첫 등판에 나선다.

임기영도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28일 롯데와의 퓨처스리그 홈경기에서 시험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천천히 마운드의 답을 찾아야 한다.
투수들의 부상은 치명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완벽한 재활과 냉정한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
'젊은 마운드'의 자신감 찾기도 중요하다.
투-타의 잇박자 속 실패가 쌓이면서 불펜진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다. 제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와 타이밍에 선수들을 투입 하는 운용의 묘가 절실하다.
뒤만 돌아보고 있기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고민과 아쉬움 속에서도 '젊은 마운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경험을 쌓으며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KIA가 기회를 길어 올리, 끝없는 추락으로 가지 그 갈림길에 서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승환 231일만에 구원승

오승환(콜로라도 로키스)이 231일 만에 승리를 챙겼다.
오승환은 13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 필드에서 열린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경기에서 5-5로 맞선 7회 초 등판해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콜로라도 타선이 7회 말에 결승점을 얻어 7-5로 승리함에 따라 오승환이 구원승을 챙겼다.
오승환이 승리를 챙긴 건 2018년 9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이후 231일 만이다. 오승환은

백리에서 통산 14승째를 올렸다.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외의 방문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2안타 1볼넷으로 활약했다.
추신수는 1회초 상대 우완 선발 크리스 배시트를 상대로 좌익수 쪽으로 향하는 2루타를 쳤다. 올 시즌 추신수의 10번째 2루타다.
추신수는 팀의 첫 타자로 나설 때 더 강하다. 추신수의 올 시즌 1회 선두타자 타율은 무려 0.692(13타수 9안타)다.
/연합뉴스

K리그, 동남아에 문 연다

내년부터 외국인 쿼터 5명으로

내년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서 '베트남 디비'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축구회관에서 열린 주간브리핑에서 "동남아 시장 개척을 통한 중계권, 스폰서십 수익 창출을 위해 동남아시아(ASEAN) 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지난 18일 열린 제5차 이사회에서 K리그 구단들의 외국인 선수 보유 쿼터를 기존 4명

(외국인 3명+아시아쿼터 1명)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아세안축구연맹(AFF) 소속 선수 1명을 추가한 5명으로 늘리는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K리그 구단은 기존 외국인 선수 3명(국적 불분)과 '아시아 쿼터'인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소속 선수 1명 외에 '동남아시아 쿼터'로 AFF 소속 선수 1명까지 총 5명의 외국인 선수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는 K리그에서 동남아 출신, 혹은 베트남 출신 선수들 간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연합뉴스



이강인 'U-20 월드컵' 출전 불투명

소속팀 발렌시아 동료 첼리세프 부상에 복귀 가능성

이강인(18·발렌시아·사진)과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을 준비하는 '정정용호' 한국 축구대표팀에 큰 변수가 생겼다.
이강인의 소속팀 동료인 주전 미드필더 데니스 첼리세프(29)가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됐기 때문이다.
발렌시아는 23일 구단 홈페이지에 "첼리세프가 오른 무릎 인대 부상으로 올 시즌 남은 경기에 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첼리세프의 부상 불통이 이강인이 합류한 한국 U-20 대표팀에 될 우려가 생겼다는 것이다. 첼리세프의 포지션은 이강인과 같은 원이다.
이강인은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에 23일 합류했다.
정 감독은 국가대표 의무 차출 규정이 없는 이번 대회에 이강인을 뛰게 하려고 직접 스페인까지 날아가 발렌시아 구단을 설득했다.
선수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서 발렌시아도 차출에 응했다.
하지만 이강인의 대표팀 합류에는 조건이 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부상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발렌시아가 이강인의 복귀를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대표팀

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스페인 매체 아스는 이날 첼리세프의 부상 소식을 전하고는 "발렌시아가 이미 한국에 가 있는 이강인을 다시 데려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며 "이강인은 U-20 월드컵 준비를 위해 지난 토요일 팀을 떠났지만 부상 선수가 생기면 발렌시아가 이강인을 복귀시킬 권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정정용 감독도 22일 대표팀 소집훈련을 시작하면서 "이강인은 1군 계약이 있어서 부상 선수가 많으면 추후 협의하자고 발렌시아 구단과 조율했다"고 말했다.
발렌시아는 올 시즌 정규리그 5경기뿐만 아니라 FC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결승, 아스널(잉글랜드)과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 리그 4강전 등 중요한 경기들을 남겨놓고 있다.
올 시즌 프리메라리가 최종전은 현지시간 5월 19일 열리고, 국왕컵 결승은 5월 25일 개최된다.
폴란드에서 열리는 올해 FIFA U-20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5월 25일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대표팀으로서 발렌시아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연합뉴스